

'그냥'이 아니라 '왜'

이인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염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긴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분이 마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단다. 그대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안에 넣나요, 아니면 꺼내 놓나요?"

할아버지는 "예 끼! 이 버릇 없는 놈."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궁금해 졌단다. 왜냐하면 수염을 기른 채 몇십 년 동안이나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 본 적이 없었거든.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정말 수염을 꺼내 놓고 잤나, 넣고 잤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쏭달쏭 하기만 했지. 결국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 할수 밖에 없었단다.

"글쎄다. 허, 참. 이 녀석, 별걸 다 묻는구나. 정 궁금하다면 팔이다, 모를 밤에 한번 자 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지. 우선 이불속에 수염을 넣고 팔이야. 그런데 너무 갑갑하고 거북해서 아무래도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거 같았어. '웁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잔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얼른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잔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얼른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눈을 감아봤어.

그런데 불편한건 마찬가지였어. 이불 밖으로 내놓은 수염때문에

왠지 허전 하고 쓸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거야.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수염을 이불로 덮으니 갑갑하고,

이불 밖으로 꺼내 놓으면 허전 하고...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꺼냈다 하느라고 한숨도 잘수가 없었던단다. 물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겠노라 했던 아이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지.

이상한일 아니니? 분명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수염이고, 할아버지는 몇십년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을 잤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아이가 묻기 전까지 그 수염

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기억할수가 없었던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물어본다고 한들 누가 가르쳐 줄수도 없는 문제잖아. 정말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었지. 그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염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수가 없었대.

재미있는 일이라고 웃어넘길일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렴,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염이 있겠지 말이야. 아이들한테 무슨 수염이 있냐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누가 질문을 할때 가끔 '그냥'이라고 대답한적이있을거야. 바로 그 '그냥'

이라는 말이 너의 수염이란단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노는날

말이야. 어떤 때에는 폭이와서 꽃이 피어도, 아침이되어 잔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느낌없이 그냥 흘깃보고 지나쳐 버리기도하지. 세들이 어떻게 작을

게어 알아보고, 구름이 어떻게 모였다가 흩어지는지 몇번이나 눈여겨 보았니?

자신에게 또는 남들에게 궁금한 일을 몇번이나 질문해보았니?

남들이 하나까 그냥 따라하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은 없었니?

자기만에 물어표가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은 건전지를 넣고
단추를 누르면 그냥 북을 쳐대는 곰 인형과 다를것이 없어. 아무생각
없이 모든 순간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속
할아버지와 똑같아. 자기 것이지만 자기것이 아닌 수명을 달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냥 수명을 달고 왔는 사람은 어쨌든 뭐- "왜?"'
또는 "어떻게?" 하고 묻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내려고 애써도 지나온 날들은 이미 멀리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 찾을길이 없기 때문이지. 어쨌든 너한
테도 누군가가 물어올지 몰라.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냥'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해야겠지?

